

# 광주시 청년 제안 정책 6건 시정 반영

## 청년위 전체회의 우수정책 선정 청년지식공유 네트워크 최우수상

광주시가 청년들이 제안한 우수 청년 정책을 선정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제7기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청년정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위원회는 분과활동 및 대구, 세종 등 타 지역 청년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바탕으로 27건의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6건에 대한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정책은 ▲청년지식공유 네트워크 만들어:봄(최우수상·박이슬 위원) ▲'광주시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은둔형 외톨이' 용어 개정(우수상·박민국 위원)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Ver 2.0(우수상·강연화 위원) ▲광주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응급실 실비지원 서비스(장려상·남혜린 위원) ▲청년 센터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장려상·김용호 위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센터 강연 연계(장려상·이은결 위원) 등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이슬 위원은 "1년 동안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정책을 제안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됐다"면서 "제안한 정책이 다음 청년세대의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12월 성과 공유회에서 표창하고, 청년이 제갈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호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제7기 청년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광주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7기 청년위원회는 '광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창업자, 청년활동가 등 광주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50명으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타 지역 청년단체와 협력 및 교류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 온라인 서류조회·발급 서비스 등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산정맞이올채 아파트 입주자 대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서류조회 및 발급 서비스 소개 ▲임대주택 정보알림 신청 방법 ▲입주대기자 조회 방법 ▲임대차계약 및 해지 등 임대대기자 속지방법 등 입주자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입주자는 "기존 관리사무소나 기관을 방문해 계약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편리하다"며 만족해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은 입주자들의 정보 능력 향상과 함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상무소각장, 소생·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

516억원 들인 도서관 건립 첫 삽  
1만 1286㎡ 규모...2024년 완공  
문화재생사업도 2025년 완료



광주대표도서관 조감도.

'광주 대표 혐오시설'이었던 상무 소각장이 광주 대표 도서관으로 변신하기 위한 첫 삽을 찼다. 광주시는 소멸·갈등의 공간을 소생·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 서구 옛 상무 소각장 부지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

광주시는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표도서관 건립, 소각장 시설의 문화공간으로 재생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인 대표도서관은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 1286㎡,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한 후속사업인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연면적 1만1258㎡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438억원이며 현재 설계진행 중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는 1990년대 지어진 상무소각장이 대

표도서관으로 탈바꿈하면, 시민 친화공간이자 문화와 예술, 소통을 위한 사회문화적 거점으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대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열람실과, 일관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독서·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주시 확산숲속시집도서관 명예관장인 김용택 시인은 이번 착공식 축사에서 "이제 도서관은 무거운 책 쪼개기 개인, 사회, 나라, 인류 정신의

집을 짓는 일이고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인간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일"이라며 "시민에게 바라만 봐도 금지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광주 대표도서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성과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미래를 살피게 하는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문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며 "한때는 쓰레기가 소멸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켰던 상무 소각장은 이제 소생,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들의 꿈이 피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속도 낸다

### 첫 자문위 회의...각계 의견 수렴

새로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자문위는 문화, 건축, 언론, 학계 관계자와 시의원,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선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착수 보고회도 함께 열렸다.

광주시는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 위상에 걸맞은 전용 전시공간을 마련하려고 1181억원을 들여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3500㎡, 지상 3층 규모로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8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연말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건축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신축되면 국제 수준에 걸맞은 품격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미래형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소방, '광산소방서 119안전센터' 개칭

광주소방안전본부 "최근 광산구 삼거동 '광산소방서 빛그린119안전센터' 개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빛그린119안전센터 건립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국가산업단지과 자연마을 주거지역의 소방차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등이 기대된다. 청사는 3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989.47㎡, 지상 2층 규모로 건

립됐으며, 1층에는 사무실, 차고, 의용소방대실, 감연관리실, 2층에는 심신안전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빛그린119안전센터는 소방인력 25명, 차량 4대(펌프차 1, 물탱크차 1, 구급차 1, 생활안전차 1)가 배치돼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 시 삼도동, 본량동, 어룡동 일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